

특례시 지정, 시민 공감대 확산

완산구, 자생단체 등 방문 찾아가는 릴레이 간담회

전주시민들의 힘으로 광역시가 없어 소외됐던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 균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주 특례시 지정에 이바지하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민들을 찾아가 전주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2019년 지혜의 원탁'을 통해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는데 이어, 완산구에서도 자생단체 회원 등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특례시 지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라기 완산구청장은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해바라기 봉사단,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와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 도시인 전주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가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추진중인 각종 세미나와 토

론회에서는 전국 행정학 교수와 지방자치학회 관계자, 언론인 등 참석자들이 정부안인 인구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기 보다는 생활인구와 중심성 등을 고려해 전북의 중추 도시인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 특례시 기준 마련과 행정수요 및 지역중심성이 다른 도시보다 큰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에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꾸준히 건의하고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운동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시민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다.

최라기 완산구청장은 "전주 발전은 물론,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전주 특례시 지정은 균형발전과 포용성장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완산구 주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 유도 국대 성폭행 코치 구속기소

검찰,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위력 등으로 인한 성폭력 가능성 존재 확인"

검찰이 전 유도 국가대표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유도 코치 A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전북 고창군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맛 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처음에 강제추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면서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던 사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A씨에게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기소된 1건을 뺀 나머지 사건은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

에 대해서 전면부인하고 자료가 불명확해 입증하기 어렵다"며 "신씨와 변호인 측에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며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9대의 기기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분석했다.

또 동료 유도 선수와 지인 등 4명의 관련자를 조사해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도계의 지나친 신체적 체벌,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체제 및 코치의 절대적 지위로 인한 성폭력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제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석훈 기자

'건물주·세입자 함께 가게'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주시, 역세권 첫 마중길 현판식 개최·3주간 협약 적정 임대료 유지 등 첫마중길건물 12개소 늘어

전주역 앞 첫마중길의 젠트리피케이션(동지 내몰림)을 예방하기 위해 인근 건물주와 임차인 등이 상생협력하기로 했다.



11일 전주 첫 마중길 카페에서 역세권 첫 마중길 현판식이 실시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건물주, 임차인 및 관계자들이 현판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는 11일 전주역 앞 첫마중길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첫마중길 주변 12개 건물주와 임차인, 첫 마중길 상생협의회의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젠트리피케이션(동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건물주-임차인-전주시 3주간 추가 상생협약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현판식을 가졌다

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개발 사업 대규모 공공재원이 투입되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되살아나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임주민과 영세상인 등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첫마중길 8개 건물이 적정 임대료 유지를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3개 건물이 추가로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첫마중길 주변 건물이 늘어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이 시·건물주·임차인 삼자간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담고 있기 때

문이다.

협약 참여 건물주는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등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상가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첫마중길 주변 50개 건물 중 협약에 참여한 12개 건물과 병원·교회·공공기관·주차장·모델하우스 등 상생협약 체결이 부적합한 18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첫마중길 권역에서는 오는

2023년까지 국비 150억원 등 총 250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상생협약 참여 대상을 기존 대로면 건물 외에도 이면도로 등 역세권 주변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전주시 사회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규모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의 동참을 확대하는 등 상권임대료 안정과 건전한 상권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 주택서 화재... 5명 연기 흡입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셨다.

11일 오후 12시 35분경 전주시 덕진구 한 다가구주택 2층에서 불이 나 건물 3층과 4층에 있던 A모(49)씨 등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2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층간중요인 전동믹보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토양개량제 살포 일손 부족 농가 돕기

전주시, 217만㎡ 농지 대상 3만985포 공동살포 추진

전주시가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토양개량제를 공동 살포해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총 2400여만원을 투입해 규산과 석회,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 총 3만985포를 공동살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농촌현장이 고령화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 토양개량제를 작기에 살포할 수 없는 농가들이 많고 토양개량제 살포되지 않아 방치되는 농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삼천3동과 조촌동, 동산동 등 총 13개동의 농지 약 217만㎡에 규산질 8,821포와 석회질 16,972포, 패화석 5,192포를 공동살포하기로 결정했다. /송효철 기자

시는 이번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통해 고령화 및 일손부족으로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못하는 개별농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을 개량하고 농지의 지력을 유지토록 만들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해인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로 농가들이 현장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이 일부 해결 될 것"이라며, "영농기 이전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완료해 농가에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범죄신고 112 · 화재신고 119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